

WMC 기도학교 시리즈 3

성경에 나타난 회개

Repentance in the Bible, Commentary



김정복 목사

“성경에 나타난 회개”를 발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4:17)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悔改)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24:46-48)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나타난 회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기도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부족한 주의 종, 목사 김정복

성경에 나타난 회개

Repentance in the Bible, Commentary



성경에 나타난 회개(悔改, Repentance)

I. 구약에 나타난 죄와 회개 | 5

1. 아담(Adam)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3:9-19) | 5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 6
2. 가인(Cain)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4:9-12) | 7
 - 1)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 8
 - 2)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 9
3. 선지자 말라기(Malachi)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1장-4장) | 10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3:7) | 10
 - 1) 말라기 1장에서 | 11
 - 2) 말라기 2장에서 | 15
 - 3) 말라기 3장에서 | 17
 - 4) 말라기 4장에서 | 23

II. 신약에 나타난 죄와 회개 | 24

1.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 2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4:17) | 24
2. 성경에 나타난 죄와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어떤 것인가? | 27
3.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29
4. 탕자의 죄와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눅15:1-32) | 30

III.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회개 | 32

- 이미 구원 받은 성도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 32
1. 구원의 과거면 : 칭의(Justification) | 33
 2. 구원의 현재면 : 회개(Repentance)와 성화(Sanctification) | 34
 3. 구원의 미래면 : 영화(Glorification) | 36

I. 구약에 나타난 죄와 회개

구약에 나타난 죄는 태초에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창1:1-31)을 경외(敬畏)하지 않고(창22:12), 하나님의 말씀(창2:15-17)에 순종하지 않으며(창3:6),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行)하지 않은 것이다.(출20:1-17)

아담과 이브가 범죄(犯罪)한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롬3:23),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롬3:10-18)

1. 아담(Adam)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2:15-17, 3:6-19)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 Adam, Where are you?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 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5-17)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브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창3:6),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고(창3:7),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3:8),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하신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Adam, Where are you?)하신 하나님의 물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시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고(창1:26-27)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창2:7) 창조하신 아담을 사랑하사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 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이브와 함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창3:8)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창3:15),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이 세상에 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눅1:35), 그 이름을 임마누엘(마1:23)이라 하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이셨고,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시며(요15:5) 성도와 연합하여 있음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마28:20)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연합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요1:5) 죄인들을 부르시며 찾고(Seek) 계신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둘째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하나님의 물음은,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장소(location)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하신 “그 자리”(Position)를 떠나서 “지금 네가 어디(Where)에 있느냐?”고 하시는 물음이다. 이브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요14:27)과 기쁨(빌4:4)과 감사(시100:3-4)가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창3:8),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안과 초조의 어두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습3:17), 아담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자리”,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합3:17-18), 하나님께서 정(定)해주신 “복된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선교사의 자리, 성

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쁨과 감사의 자리 “그 자리”에 네가 지금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죄악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떨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고 물으신다.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 어두운 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회개는 “죄악 된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Return to God.).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은,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며,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 곧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문책의 음성이다.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롬5:1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롬5:18-19, 고전15:22)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자리”,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14:6)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다(요16:9),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잃어버린 “그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安息)(마12:8)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

2. 가인(Cain)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4:9-12)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하였으며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창4:1-2).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창4:7), 하나님 앞에서 동생 아벨을 투기하여 쳐 죽였다.(창4:8)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 Where is your brother, Abel?,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 Am I my brother's keeper?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 What have you done?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저주받은 땅(창3:17)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창4:3-5)

○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6-7)

○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4:8-9)

1)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4:9)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그 사실”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실”을 몰라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다.(창4:10) 여기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신 물음은 가인 옆에 마땅히 있어야 할 네 아우, 여호와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아벨(창4:4)은 왜 보이지 않느냐? 네 아우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왜 비어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다. 이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와 문책의 물음이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사랑과 경고와 문책의 질문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대답을 한다.

(1)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창4:9)한 말의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죽은 아벨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음부의 장소(location)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말 같다.

- (2)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형과 아우와의 혈육의 사랑의 관계도 부인한다.

2)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창4:10)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회개 할 기회를 주셨으나, 가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시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직접 물으신다. 그리고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하시고 동생 아벨을 죽인 죄 값을 치르도록 말씀하신다.(창4:11)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며 온유하시(고전13:4) 회개 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공의(公義)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요일4:8, 16)이시지만, 동시에 공의(公義)의 하나님이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창4:8), 죽은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하므로(창4:10),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한다(시 51:1-4).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가인과 아벨의 주인이시다.

- (1)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the Creator, God)이시고, 사람은 피조물(creation)이다.
- (2)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시51:4)
- (3) 성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요일:12)
- (4)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롬1:6)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

유이다.(엡1:3-6)

(5) 그러므로 다른 형제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것과 같다.

-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51:1-4)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25:45)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창2:15-17)에 불순종(창3:6)하여, 하나님 앞에 원죄(原罪)를 범(犯)하였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창4:7)에 불순종하여 동생을 쳐 죽임으로(창4:8),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 등,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창3:15),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요19:30, 3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요3:16-17)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며(마22:35-40),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신다.(요16:9), 그리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고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마25:40, 45)

3. 선지자 말라기(Malachi)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1장 - 4장)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Return to God),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3:7)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요1:12)
2.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엡2:8)
3.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눅15:21)

1) 말라기 1장에서

-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1:2-3)

- 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말1:2)
- 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이다.(엡1:4-6, 2:8-9)
- 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요15:16)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이다.(롬5:8)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15:16)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2)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말1:6)

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네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공경해야하고, 종이라면 주인을 경외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고 하신다.

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신 말씀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만인 제사장론)

만인 제사장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딤후2:5)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가리켜 만인 제사장론 이라고 한다.(생명의 말씀사 굿데이 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창3:15)을 완성하셨으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임으로(히10:19-20),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10:19-20)

○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벧전2:5)

○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벧전2:9-10)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1:6)

(3)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 주겠느냐?(1:7-8, 신15:21, 레22:22)

가. 너희가 하나님께 더러운 떡, 눈 먼 희생의 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신15:21)

○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레22:22)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느냐?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말1:9)

(5)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燔祭)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말1:10)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민족이 크게 되리라

(6)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말1:11-14)

- 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1:11)
- 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상(床)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느니라.(말1:12)
- 다. 너희가 이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말1:13)
- 라. 너희는 서원하는 일에 수컷이 있거늘 험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몸은 거룩하여야 한다.

(7)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전이다.(롬12:1, 고전3:16, 6:19)

- 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 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16-17)
- 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렸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6:15-18)
- 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전6:19)

2)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

-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말2:1)
여기서 제사장이라 함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벧전 2:5, 9-10)
- (2)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말2:2)

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롬10:17)

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히8:10)

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마.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말2:2)

- (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말2:3)

가.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나.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며

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말2:4-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가.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A covenant of life and peace)이라.

이 언약을 준 이유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다. 레위 인은 내 것이라.(민3:45, 롬1:6)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할 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셨고(출12: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출13:1-2) 이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출13:15-16) 하시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롬1:6)임으로 거룩해야함을 의미한다.

○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출4:22-23)

○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민3:45)

○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1:6)

(5) 레위지파 곧 제사장들의 삶

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말2:6)

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의 사자가 됨이어늘(말2:7)

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데

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말2:8)

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말2:9)

(6) 택함 받은 자의 타락한 삶

가. 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말2:10-12)

나.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삿2:1-5, 보김) 여호와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시리라(말2:13)

다. 여호와께는 영이유여하셨으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네가 어려서 맞이한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사이에 여호와가 증인이라 네 심령을 삼가지켜 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2:14-15)

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거짓을 말하는 도다. (말2:16-17)

3) 말라기 3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시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말3:1)

나.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으리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말3:2)

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가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말3:3)

라.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말3:4)

마. 심판자로 임하리라

내가 심판하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말3:5)

바.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말3:6)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 Return to Me.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 And I will return to you.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 How are we to return?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3:7-8)

여기서 사람이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나?

한글성경(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어성경(KJV, NIV)에는 “God(하나님)”으로 되어있다.

○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말3:8)

○ Will a man rob God? Yet you rob me. But you ask, How do we rob you? In tithes and offerings.(Mal3:8)

한글 :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영어 : Will a man rob “God”? /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한글 :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영어 : But you rob “me.” /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 하였다

한글 :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영어 : But you ask, How do we rob “you”? /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 “In tithes and offerings”.

한글 :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영어 : You are under a curse, the whole nation of you, because “you are robbing me” /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3:8-9)

“You are robbing me.”는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영어성경에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 할 수 있는가?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the Whole Tithes and offerings)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 하는 것이고,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말3:8)

(3)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은 어떤 것인가?

필자가 어느 집회에서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때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의 온전한 십일조와 헌금이 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이 과연 소득의 십일조와 헌금 즉 “돈”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자.

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

하였노라(말1:2-3)

- 나.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 다.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말3:7)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라(마22:37-40)는 말씀이다
- 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 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도둑질 하였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이다.
- 마.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둑질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식이 불효자식인 것과 같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한 성도이다. 부모님이 자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와 봉헌물” 곧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말3:8, 레27:30, 스후3:17)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와 봉헌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매일 24시간의 십일조인 2시간24분과 봉헌물의 시간을 성경말씀과 기도로 살고, 매일 나의 언행심사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며, 한 달의 십일조인 3일은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며, 모든 소득의 십일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바치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중심, 말씀중심, 기도중심으로 살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

와 사랑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다.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전체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의 삶의 내용이다.

가. 시간의 십일조 : 하루 24시간의 십일조 / 2시간24분 + @ 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약 3시간)

나. 음식의 십일조 : 한 달 동안 먹는 음식의 십일조 / 3일은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로 산다.

다. 소득의 십일조 : 모든 수입(Income)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라. 언행심사(言行心思)의 십일조 :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의 십일조를 드린다.

언행심사의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말한다.(요15:4-7)

언(言) : 하루에 10번 말했으면 1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전한다.

행(行) : 하루에 10가지 행동을 했으면 한번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거룩한 삶과 행동을 한다.

심사(心思) : 하루에 10가지 생각을 했다면 한번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한다.

마.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삶이다. (Return to God)

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레11:44-45, 19:2, 벰전1:15-16, 딤후4:5-7)

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고후5:8-9, 엡5:10, 히11:5-6, 창22:12)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롬12:1-2, 요일2:15-17)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룩한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가) 항상 성경 말씀을 먹고(겔3:1-3), 기도하며 거룩하게 산다.(딤후 4:5-7, 벰전1:15-16)

-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를 매일 하나님께 바치며 산다.
- 다)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며(마12:8), 예배와 교회생활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산다.
- 라)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히11:5-6, 롬1:17)
- 마)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매일 죽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산다(고전15:31, 빌2:12)

(4)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 가.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3:10-12)
- 다. 말3:10-12 말씀은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의 결과이지,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게 된 동기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십일조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방법이다.

(5)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말3:13-18)

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 가)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 하였나이까 하고
-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하며
- 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한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 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 나)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며
- 다) 그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3:13-18)

4) 말라기 4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1)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말4:1)

- 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잠16:18)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 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말4:2-3)

- 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 나.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 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3)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말4:4-6)

- 가.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 나.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는 이와 같이 결론도 없이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시고 끝을 맺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사40:3-5, 마3:1-3, 막1:2-8) 그 후 예수님께서서 오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말1:2, 3:7-9)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참고 : 창15장-17장)

II 신약에 나타난 죄와 회개

신약에 나타난 죄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16:9),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롬7:14-25),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갈 5:14, 마 22:35-40)

1.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서 이때부터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다.(마4:17)

예수님께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마3:15),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마4:1-2),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마4:3-11, 눅4:2-13), 이때부터 예수님께서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 하시니라.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

1) 예수님께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고 하신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sins)가 있으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의 벽이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며 상달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한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기도의 관계를 막는다. 따라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요9:31)

○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 1:15)

○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사59:1-3)

○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렘5:25)

○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2) 시편기자는 시102:1-2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음을 알고, 내 기도가 주께 상달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한다. 그리고 다시 나의 괴로운 날, 금식하며 속죄하는 날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다.

○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102:1-2)

여기서 “나의 괴로운 날”은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이다.(레23:26-29)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레23:26-29)

3) 선지자 다니엘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알고 즉시 회개한 후에 다시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Lord, listen)하고 기도하였으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알고, “주여 용서하소서”(Lord, forgive)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Lord, hear and act)하고 기도한다.

첫 번째 주여는 들으소서 : Lord, listen (회개하기 전에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 주여는 용서하소서 : Lord, forgive (속죄하는 회개기도)
세 번째 주여는 들으시고 행하소서 : Lord, hear and act (속죄 후에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

기도하기 전에 “주여”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는 의미에서 “주여”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다.

○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단9:19)

2. 성경에 나타난 죄와 예수님의 대속(代贖)사역은 어떤 것인가?

- 1) 성경의 모든 죄는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보다 더 경배하며, 하나님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행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
- 2)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이 모든 죄를 다 범했고(롬3:10-18, 23),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롬6:23), 온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죄 문제 곧 죄의 삯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 한 직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사 그를 통하여 범죄한 죄인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속사역을 계획하셨다(창3:15)
- 3) 이에 죄 없으신(히4:15),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사(요1:14)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요19:30, 34),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히9:22, 례17:1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요3:16 고전15:22 요14: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요16:9)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53:4-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요일4:9-10) 온전한 중보자(Mediator, 딤후2:5) 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

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가 이룩한 의(義, Righteousness)인데, 그 “의(義)”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能動的順從, Active Obedience)과 수동적 순종(受動的順從, Passive Obedien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仲保者) (딤펴2:5, 히9:15)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사 비하(卑下, humiliation)의 과정을 거치셨으며, 그 결과 수동적으로 승귀(昇貴, exaltation)의 과정에 이르게 되신다.(빌2:5-11)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비하(卑下, Humiliation) 하셔서, 성육신(成肉身), 수난(受難), 죽으심(死亡), 매장(埋葬)(빌2:5-8) 되셨고,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승귀(昇貴, Exaltation) 하셔서, 부활(復活), 승천(昇天)하셨고 앞으로 재림(再臨)(빌2:9-11)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은3:5-8)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赦)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며(요일1:9),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히10:17-18, 사43:25)

- (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 (2)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赦)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10:17-18)
- (3)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3.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며 죄악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비하게 사는 것이다. 이때에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罪)의 벽(壁, wall)이 무너진다.

- 1)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My Lord),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인정한다.
- 2) 내가 죄인(sinful man, sinner)인 것을 인정한다.(눅15:17-21)
- 3) 나의 죄가 생각나도록 성령님께 간구한다.(요14:26)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과거와 현재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Confession)한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 4) 즉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sins)와 악(evil)에서 떠난다.(욘3:8)
- 5)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Fear God), 스스로 낮추고(Low), 겸비(Humble)하게 생활한다.
- 6)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 (1) 회개한 니느웨 성 왕의 겸비 (욘3:6-9)
 - (2) 회개한 아합의 겸비 (왕상21:27-29)
 - (3)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의 겸비 (대하33:11-13)

(4)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의 겸비 (왕하22:19-20)

(5)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겸비 (대하12:1-2, 4-7, 12)

○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7)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3:17)

4. 탕자의 죄와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누가 탕자인가? 모두 탕자들이다.

큰 아들 :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눅15: 2, 28-30)을 의미하고

작은 아들 : 세리와 죄인들(눅15: 1, 11-24)을 말한다.

1)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한 후에 멀리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냐? / 재물이나? (눅15:13)

2) 아버지를 떠난 후에 허랑방탕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둘째 아들 아버지 중심이나? / 자기중심이나?(눅15:13)

3)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둘째 아들 아버지께 무관심 / 세상에만 관심(눅15:13)

4) 아버지와 함께 몸은 있으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큰 아들 아버지를 믿지 않고, 불만족, 불순종, 불평, 반항하는 큰 아들(눅15:28-30)

5) 둘째 아들의 회개(눅15:17-21)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죄를 회개한 아들의 부르심이다. 과거에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갖고 멀리 떠난 둘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나의 아버지”하고 부르며, 아버지를 아버

지로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 (1) 굽주림으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한다.(15:16-17)
- (2)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생각한다.(15:18-19)
- (3)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마음의 생각을 실천에 옮겨 아버지께로 돌아왔다.(15:20)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 올 때에 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갈 2:20),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6)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눅15:20-21)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가 입맞춤으로 이루어진 예(例)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과 입을 맞춘은 아들에 대한 죄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한다. 구약에는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삼하 14:33)으로, 신약에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입맞춤(눅15:20)으로 나타난다.

- (1) 아직도 거리가 먼데(While the son was still a long way off.) 하는 “거리”를 생각해 본다.

- 가) 탕자와 아버지와의 지역적 거리(distance)
- 나) 탕자와 아버지와의 마음(心)의 거리(아들과 아버지의 마음)
- 다) 탕자와 아버지와의 신앙적 거리(죄인과 의인의 믿음)

- (2)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 (3)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눅15:20, 삼하14:33)
 - 가)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으로 용서하다
 - 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와 입맞춤으로 용서하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입맞춤은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있는 모든 거리들을 없애 주었다.

○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삼하14:33)

○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눅15:20-21)

7)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눅15:22-23)

아버지는 용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

- (1) 제일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혀 줌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
- (2)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아버지의 언약을 확인시켜 준다.
- (3) 밭에 신을 신켜 줌으로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준다.
- (4)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이는 내 아들임을 세상에 공포하고 확인시켜 준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며, 새롭게 아들의 신분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자유인임을 세상에 공포하며 오직 사랑으로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는 예수님께서 돌아와 회개한 세리와 죄인(눅15:1)을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III.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회개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3-6)

이미 구원 받은 성도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구원(Redemption)은 구원의 과거면(past aspect), 구원의 현재면(present

aspect), 구원의 미래면(future aspect)의 세 가지 면(three aspect)에서 생각해야 한다.

1. 구원의 과거면(past aspect, 過去面) : 칭의(稱義, Justification)

-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 2)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 3)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3:5)
- 4)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엡2:8-9)
- 5)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구세주(One & Only God)이심을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한다.(Born again)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는다.(롬3:24)

칭의(稱義)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한 “의(義)”가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방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삯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값을 나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의 삯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

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범하는 모든 죄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헬라어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dikaiow”인데, 이 말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란 뜻이다. 헬라어에서 “ow” 로 끝나는 동사가 윤리, 도덕을 말하면 “--- 로 여김을 받는다”란 의미를 갖는다.

바울 사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 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7:18-19) 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7:24)하며 한탄하였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롬7:25) 하며, 육신 안에 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승리를 선언한다.(롬 7:15-8:4)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5:20-21)고 한다.

그런즉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얻기 위해 다시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다.(롬6:1-11)

2. 구원의 현재면(Present aspect, 現在面) : 회개(悔改, Repentance) 와 성화(聖化,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고(롬 3:24, 5:1),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1:12, 롬8:15, 갈4:6) 우리는 아

직 “육체의 몸”에 살고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에 “영혼은 중생(요3:5, 딤후3:5)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롬6장) 마음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 재림(再臨) 시에 부활하는데 그때 이미 죽었으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히 부활체(復活體)로 변하게 된다.

구원의 현재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2:16)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롬7:22-23)고 탄식한다. 이는 구원의 현재 면에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싸움인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를 “믿음으로 싸우는 전투적 교회”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현재 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한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히10:17-18, 사43:25)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고전15:31),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2:20)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이 범한 죄의 종류나, 양(量)이나, 질(質)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느냐에 있다

○ 니느웨 성의 구원(욘3:1-10)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 까지 모두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였고

○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창19:1-29)은 회개하는 죄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3. 구원의 미래 면(Future aspect, 未來面) : 영화(榮化, Glorification)

구원의 미래 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 따라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성화(Sanctification)에 힘써야 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이 온전히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1)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고 하셨고,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6:12)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눅24:46-48)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다(행1:9)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모든 족속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2)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모습

- (1)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2-14)
- (2)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 9:16)
- (3)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9:27)
- (4)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 3)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이지만, 아직 육체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 구원이 온전히 이루도록 성화(聖化)에 힘써야 한다.

.....

**○ 요한 낙스(John Knox)의
기도방(Prayer Room)**

필자가 1980년 3월에 영국 Scotland Edinburgh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했을 때에, 요한 낙스의 집을 방문하였다. 작으마한 집인데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에 오르니 서재 옆에 작은 구석방이 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이 구석방이 요한 낙스가 스코트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방이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나도 집안에 기도의 방을 만들고 싶었으나, 우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는 기도의 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필자가 마련한 기도의자와 무릎받침대

**○ 요한 웨슬리(John Wesley)의
기도의자(Prayer Chair)**

필자가 1989년9월부터 12월까지 영국 London교외에 있는 WEC 선교부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에 London에 있는 요한 웨슬리의 주택을 방문하였다. 이층 웨슬리의 서재에 들어가니 서재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 기도의자와 무릎 받침대가 있다. 요한 웨슬리가 매일 기도의자에 앉드려, 무릎받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즉시 나의 책상 옆에 “기도의자와 무릎받침대”를 마련하였다.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님 - 아 - 버 지 - 사 랑 - 해 - 요 - - -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사 랑 - 해 - 요 - - -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사 랑 - 해 - 요 - - - -
 할 - 렬 루 - 할 - 렬 루 - 할 렬 -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버 - 지 - 고 - 마 위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고 - 마 위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고 - 마 위 요 -
 할 - 렬 루 - 할 - 렬 - 루 - 할 - 렬 루 야 -



나 - 를 위 하 여 독 생 자 주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십 자 가 지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기 도 하 시 - 는 - - - -
 할 - 렬 루 야 - 할 렬 루 야 - 아 - - - -



하 - 나 님 - 아 - 버 - 지 - 감 - 사 해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감 - 사 해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감 - 사 해 요 -
 할 - 렬 루 - 할 - 렬 - 루 - 할 - 렬 루 야 -



김정복 목사 / 기도학 교수

Rev. Dr. Chung Bok Kim

Professor of prayerology

- 현재**
- * L.A.예본교회 개척 및 원로, 선교목사(Senior, Missionary Pastor)
 - * W.M.C.선교회 순회선교사(Itinerary Missionary)
 - * W.M.C.선교회 설립자 겸 대표(Founder & President)
 - * W.M.C.국제기도학교 설립자 겸 교수(Founder & Professor)
 - *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기도학(Prayerology)교수 역임
 - * 월간기도 편집인 겸 발행인(Editor & Publisher)

- 학력**
- *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Biblical Ph.D
 -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Min
 -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Th.M.
 - *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Div.
 -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1977.3), M.B.A.
 -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B.A.
 - * 경기 중, 고등학교 졸업 (1958년/ 54회)

- 저서**
- 16) 성경에 나타난 회개 (WMC 기도학교) (2018. 2)
 - 15) 성경에 나타난 죄 (WMC 기도학교) (2017. 8)
 - 14) 주기도 강해 (WMC 기도학교) (2017. 5)
 - 13) 성경 기도교육세미나 기도학교 강의교재 (WMC 기도학교) (2014)
 - 12) 산상수훈을 통한 예수님의 기도교육 (보이스사) (2012년)
 - 11) 시로 드리는 기도 (보이스사) (2009년)
 - 10) 성경 기도백과 (보이스사) (2007년)
 - 9) 성경적 기도와 큐티 (보이스사) (2007년)
 - 8)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보이스사) (2005년)
 - 7) 기도학교를 통한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2000년)
 - 6)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쿰란 출판사) (1997년)
 - 5) 인덱티브 성경연구 방법론 (학위논문) (1995년)
 - 4) 옥중,목회서신인덱티브 성경연구 시리즈 (쿰란출판사)(1994년)
 - 3) 로마서 인덱티브 성경연구 시리즈 (쿰란출판사) (1993년)
 - 2) 성경적기도 (생명의 말씀사) (1993년)
 - 1) 주제별 기도연구 (크리스찬 서적) (1986년)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